

한국 영유아교원교육학회소식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발행인 : 조형숙

발행처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편집인 : 황연옥·정우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3관 1230호

Tel : (02)820-5398 | E-mail : ks_ecte@naver.com | http://www.eceteacher.com

금쪽이 부모님, M 세대에 대한 이해와 지원

김민정 교수 (창원대학교)

역할(役割)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는 다양한 직책과 임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역할을 부여받으며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마다의 역할이 다르고, 또 각각의 역할들이 다 나름의 의미가 있기에 그 경중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역할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라는 역할은 그 중요성에 비례해 보람과 책임은 물론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자녀와의 관계가 기본이기에 제공자(giver)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지원과 격려를 제공받아야(receiver)하는 양면적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역할은 동일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성장, 가족발달주기의 변화 및 가정상황에 따라 부모는 계속해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됩니다. 즉, 부모라는 역할은 진행형이며, 끝없는 과정 그 자체인 미완성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어렵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부모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내에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 중 일부가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개의 부모

가 겪는 역할 혼란이나 갈등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이 개별화되고 다양해진 동시에 결혼율, 출산율, 이혼율이 파도를 타듯 곡선을 그리며 가정의 기능과 형태가 변화된 오늘날, 부모 역할의 전형이나 당위성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시기에 외동이들을 낳고 기르는 ‘금쪽이 부모님’들의 고충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신청을 받아 자녀의 사례를 공유하고 코칭을 해주는 예능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가 2020년 5월 첫 방송 후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어려움과 부모 역할에 대한 전문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교육의 성패가 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에 있음을 고려할 때 2021년을 살아가는 금쪽이 부모님들에게 꼭 맞는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금쪽이 부모님들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후반 사이 출생한 M세대(Millennial Generation)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모보다 더 어려운 세대이지만 디지털 기술력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자본을 누리는 세대이며, 일방적 권위를 거부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화가 가속화된 이후에 태어나 핵가족 안에서 성장했고, 최근 코로나19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근무 등의 상황으로 지역 학부모 공동체와 연계 경험이 많지 않은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적 이해를 기반으로 M세대 부모에 대한 지원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쪽이 부모님인 M세대는 **삶의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부모교육전문가가 대집단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전공지식에 대해 전달하던 기존의 부모교육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이 강한 개별 자녀와 부모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 소그룹 토의, 개별화된 코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마다의 상황과 소신으로 부모 역할의 전형을 깨, 작지만 생동감 있는 사례에 대한 발굴과 공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형화되어 있는 부모 역할 틀에서 서로의 역할을 서열화하고 이질감을 느끼던 것에서 벗어나, 각자의 상황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다양성에 대한 동질감을 기반으로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삶에 대한 개인적 의미와 즐거움**을 중시하는 금쪽이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사명, 책임을 기조로 하는 묵직한 접근보다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와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부모 역할이라는 것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눈물겨운 과정으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유의미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선물과 같다는 것을 알고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M세대 부모의 호응을 얻고 있는 육아웹매거진 <호락호락>에 집콕놀이, 둘째출산, 자녀경제교육과 같은 자녀양육에 대한 콘텐츠뿐 아니라, 경력단절, N잡러와 같은 부모의 자기계발과 취미에 대한 콘텐츠를 고르게 담고 있으며, 댓글 등을 통해 그 즐거움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 세대까지는 집안일과 바깥일을 구분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역할이 어머니에게 편중되었다면, M세대는 부부가 함께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자녀양육도 함께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실제 적용 사례들도 활발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30~40대 아버지들의 육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도서 『85년생 요즘 아빠』에 대한 관심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기 선택과 동기로 양육에 한 걸음 더 나아온 지금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구체적 사례연구와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여 균형 잡힌 부(父), 모(母)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장을 함께 써 내려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한 금쪽이 부모님들은 **디지털 베이스의 시청각 자료**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활용 및 호응도도 높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에 있어 온라인 방송채널이나 웹매거진과 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의 일방향전달이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인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양방향 형식이 되어야 M세대 부모에게 전달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부모가 자신의 개별적인 상황과 역할에 대한 실체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베이스의 창

구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진솔한 소통과 건강한 연대를 통해 정답이 없는 시대에 좋은 답을 함께 찾아가는 동료로서, 또 필요할 때마다 서로의 좌표를 확인하고 격려를 주고받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M세대 부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몇 가지 지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을 마치며, 양육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부모를 규정하기 보다는 이들도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저마다의 상황에 적절한 개입과 지원 그리고 격려를 받으며 자녀와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쌓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에 대한 성공감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한 이 경험들이 축적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이상으로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변화를 통해 아이의 미소가 부모의 웃음이 되고, 한 가정의 기쁨이 이 사회의 행복이 되는 이상적인 선순환이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꼭 듣고 싶습니다. ‘부모가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멋진 일이야!’ 라는 부모세대의 진실된 고백을 말입니다.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1년 학회소식

1. 편집부_학술지 발간

1) 유아교육학논집 발간

- 2021년에 「유아교육학논집」 제25권 1~4호 총 4권 발행되었습니다.
- 학회지인 「유아교육학논집」은 연 6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마지막 날) 발간됩니다.

2) 2021년도 학술지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3) 2021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우수논문 1편 선정

- 2021 춘계 학술대회 발표 우수논문으로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전문가과정 개발과 과정: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남임)」이 선정되었습니다.
- 선정된 1편의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 홍보부_뉴스레터

1) 뉴스레터 통권 39호(2021년 4월) 발행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홍보부 이사 이종향 교수(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기고
- 기고문 제목: 유아교육현장에서 베이비붐 그리고 X, Y, Z 세대와 공존하기

2) 뉴스레터 통권 40호(2021년 10월) 발행

- 뉴스레터가 회원님들의 기쁜 소식(임용 및 출판 등)을 나눌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3. 학술부_학술대회

1) 2021년 춘계 학술대회

- 주제 : 유아교육기관 세대문화의 이해와 협력방안 모색
- 일시 :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9:30~14:20
- 장소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기조강연 및 주제 발표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강의실

• **참여인원**

- 유아교육과 및 보육학과의 교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정책 담당 등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종사자 350명 이상 참가

• **학술대회 내용**

- **한국사회 세대문화의 특징**
최셋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 **교원의 인간관계와 세대문화의 특징**
윤소희 교수(한남대학교)
- **유아교육기관 구성원의 세대간 갈등과 해결 사례**
최재원 원장(우정유치원)
- 분과 발표 논문 23편, 기획분과 2편, 포스터 발표 논문 10편

2) 2021년 추계 학술대회

- **주제** :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학부모 이해와 협력방안
- **일시** :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9:30~14:20
- **장소** : 신구대학교 부속유치원(기조강연 및 주제 발표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강의실

• **참여인원**

- 유아교육과 및 보육학과의 교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정책 담당 등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종사자 500명 이상 참가

• **학술대회 내용**

- **토착문화심리학으로 바라본 한국부모의 특징**
김의철 교수(인하대학교 경영학과)
- **학부모 심리학의 제안: 그 가능성과 의의**
임성택 교수(강원대학교 교육학과)
- **영유아교육기관 학부모 이해와 협력방안**
최재원 원장(우정유치원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
- 분과 발표 논문 24편, 기획분과 3편, 포스터 발표 논문 7편
- 연구윤리 강연 및 연구윤리 Q&A 운영

4. 연구부_연구법 특강

1) 2021년 하계 연구법 특강

- 일시 : 양적연구_2021년 8월 5일(목), 8월 6일(금)
 질적연구_2021년 7월 26일(월), 28일(수), 30일(금)
- 장소 : 온라인 강의실

강좌 및 강사	일시	주제	내용	신청인원
양적연구 이현정 교수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8월 5일 (목)	기초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기초 개념과 정리 • 기초 분석 • 고급 통계를 위한 기초 통계의 역할 	33명
	8월 6일 (금)	고급회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귀분석의 기본 개념 • 범주형 변수 • 상호작용효과 분석 	32명
질적연구 서덕희 교수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7월 26일 (월)	질적연구에서 사례연구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연구와 사례연구 • 왜 사례연구인가? • 언제 사례연구를 하게 되는가? • 수강생 연구에의 적용 	51명
	7월 28일 (수)	사례연구 분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에서 분석은 무엇인가? • 사례연구에서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수강생 연구에의 적용 	47명
	7월 30일 (금)	사례연구의 학문적·실천적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에서 일반화는 무엇인가? • 사례연구의 실천적 기여는 무엇인가? • 수강생 연구에의 적용 	45명

학회 안내

1. 학회 가입 안내, 연회비 납부 및 개인정보 안내

1) 학회 가입 및 연회비 납부

- 학회에 신규 가입하실 때에는, 홈페이지(www.eceteacher.com)에 회원가입 후, 가입비(1만원)와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는 연 6회 발행되는 학회지(유아교육학논집)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 류	구 분	회 비	입금계좌
가입비	가입 시	1만원	우체국 011775-02-146071 (예금주: 이승하)
연회비	일반회원	4만원	
	학생회원(석사과정까지 포함)	3만 1천원	
	평생회원(45세 이상)	30만원	

2)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안내

- 본 학회의 회원관리와 학회지 발송은 홈페이지의 온라인 가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편물이나 학회지의 배송, 학회를 통한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먼저 정보를 수정해 주시고, 학회메일 ks_ecte@naver.com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유아교육학논집 투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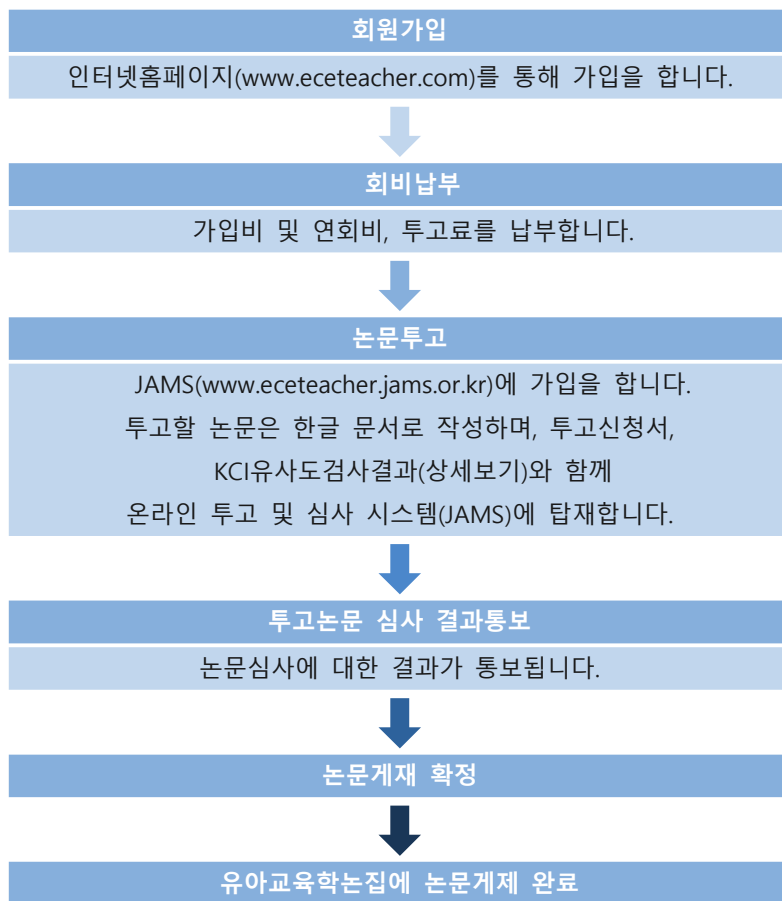
1) 논문투고 안내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의 학회지인 『유아교육학논집』에서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 투고 시, 투고자 모두 본 학회의 홈페이지 [www.eceteacher.com]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가입비(최초 가입 시)와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회의 회원 승인(납부확인) 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의 학회지인 『유아교육학논집(ISSN 1229-5809)』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며, 연 6회(발간일: 2/28, 4/30, 6/30, 8/31, 10/31, 12/31) 발간합니다. 원고 마감일은 발간일 2달 전까지입니다.
- 논문투고 및 심사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에서 진행됩니다(www.eceteacher.jams.or.kr).

· 논문투고와 관련된 문의

- 주소 :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신관
463호 유아교육과 윤재희 교수 연구실
- 연락처 : 053) 810-2891 / 010-2589-2771 (김선희 간사)
- 이메일 : child2362@hanmail.net (※ 학회 메일 주소와 다름)

2) 논문투고 절차



3) 투고료 및 게재료 안내

종류	내용	비고
투고료 (심사비)	100,000 원	
재투고료 (재심사비)	70,000 원	1차 심사의 재심사비
	20,000 원	2차 심사의 재심사비
게재료	기본 18쪽까지 200,000 원	추가 1쪽당 20,000 원 (18쪽 초과시)
연구비 수혜논문일 경우	추가 200,000 원	
입금계좌	우체국 : 703025-02-138760 (예금주: 윤재희)	